

2026년 8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PART 1 관광통계

□ '26년 7월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8월 전망

- '26년 7월까지 홍콩 방한객은 416,8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상승
- 여름방학, 하계휴가로 인한 하계 성수기(7~8월) 견조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여행 비수기인 9월부터 증가세 둔화 전망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1~6월 '19년 동기 대비 3.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37,710	47,197	59,364	70,802	59,888	65,690							340,651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6월 '19년 동기 대비 62.8%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29,083	96,260	82,425	64,530	58,539	31,791							462,628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6월 '19년 동기 대비 27.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8.67%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020,038	9,422,176	10,553,190	11,182,960	10,526,034	9,942,434							61,828,832
2025	9,665,937	7,845,160	9,691,689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6월 ‘19년 동기 대비 89.8% 회복, 전년 동기 대비 0.3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807,584	943,368	988,515	1,030,615	927,601	975,273							5,672,956
2025	987,169	730,359	871,688	1,176,616	936,205	950,682	1,054,326	1,081,042	790,245	959,946	919,632	1,231,000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6월 ‘19년 동기 대비 76.6%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3.02%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4811,700	5,141,714	4,354,229	4,217,311	4,464,840	3,722,694							26,712,488
2025	4,742,066	3,667,671	3,818,512	3,847,934	4,078,938	3,480,979	4,390,514	5,152,837	3,292,197	4,588,515	4,189,272	4,645,397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경쟁국 방문 현황(‘26.1~6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2.6% 증가, 대만 -7.4%, 태국 -1.9%, 싱가포르 -8.7%

○ ‘19년 대비 일본 18.3% 증가/ 대만 70.1%, 태국 59.0%, 싱가포르 66.2%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200,048	233,900	216,300	226,000	207,900	214,300						1,298,487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290,748
대만	‘26	76,023	81,833	92,887	107,973	85,809	83,354						527,879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598,223
태국	‘26	40,346	55,659	47,371	55,094	47,433	44,342						290,245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1,045,198
싱가포르	‘26	19,420	22,100	25,500	34,550	23,960	25,550						151,08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 **홍콩 8월 폭염, 142년 만의 최고기온 경신**

- 홍콩천문대는 8월 9일 침사추이 본부에서 섭씨 36.9도를 기록해 188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날 신계 성수이(上水) 지역은 39.8도까지 올라 2017년에 세워진 종전 기록 36.6도를 크게 웃돌았음
- 천문대는 이어 8월 12일 밤 최저기온이 30.2도로 143년 만에 가장 더운 밤이었다고 밝혔으며, 이 기간 등산객 2명과 인테리어 작업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 사망함
- 한편 노동처가 운영하는 작업장 폭염경보(工作暑熱警告)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당일에도 3단계 가운데 최저 단계인 황색에 머물렀으며,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적색과 흑색 경보는 한 차례도 발령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보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는 권고 사항에 그쳐 고용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홍콩열지수(HKHI)가 주로 실내에 머무는 일반 시민의 병원 입원 통계를 토대로 설계돼 직사광선의 영향이 과소 반영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로 기준을 바꿀 것을 요구함.
- 홍콩 노동복지국장은 8월 18일 경보 발령 기준선 조정을 포함한 개선안을 8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힘
- 그린피스가 8월 25일 발표한 65세 이상 127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7%가 고온으로 건강이나 수면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고 5.5%는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쪽방이나 옥탑가건물 등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약 90%는 임시 무더위쉼터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함

<인바운드 동향>

□ 홍콩 인바운드 관광, 상반기 두 자릿수 증가 후 7월 들어 3%로 급감

- 홍콩관광청(HKTB)은 8월 17일 7월 방문객이 약 45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함. 대형 국제회의가 비즈니스 여행 수요를 끌어올렸으나 기상 악화가 본토발 관광객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됨
- 본토 관광객은 약 361만 명으로 3% 증가에 머물렀으며, 며칠간 이어진 악천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본토 관광객은 7월 전체 방문객의 약 80%를 차지함
- 홍콩천문대는 7월이 평년보다 훨씬 흐리고 습했다고 밝혔으며, 광범위한 기압골과 활발한 남풍 기류에 더해 열대저기압 '메이삭'과 '노을'의 영향으로 월 강수량이 790.3mm를 기록해 평년치의 두 배를 넘어섬
- 이는 상반기의 흐름과 뚜렷이 대비됨. 1~7월 누적 방문객은 3,12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이 가운데 본토 방문객이 2,416만 명으로 13%, 비(非)본토 방문객이 약 705만 명으로 5% 늘어남. 7월 한 달 증가율(3%)이 누적 증가율(11%)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며, 회복세가 본토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남
- 7월 실적을 지탱한 것은 제108회 라이온스 세계대회와 기술 전시회 LEAP East 등 대형 국제회의·전시(MICE) 행사였으며, 관광청은 이들이 비즈니스 방문객과 일부 시장의 방문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함
- 홍콩 정부는 대형 행사 유치로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음. 폴 찬(陳茂波) 재무장관은 8월 9일 블로그를 통해 1~6월 130개 이상의 행사에 약 175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 약 58억 홍콩달러(약 7억 3,900만 미 달러)의 소비가 발생했고 경제 기여액은 33억 홍콩달러라고 밝힘
- 또한 홍콩축구페스티벌과 아우디 풋볼 서밋을 대표 사례로 들며 두 행사의 3경기에 12만 명 이상이 입장해 1억8천만 홍콩달러 이상의 티켓

- 매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문화·예술 및 대형 행사가 소비 수요를 견인해 소매판매액이 14개월 연속 증가하며 상반기 9.6% 늘었다고 언급함
- 하반기에는 푸드엑스포, 국경절 불꽃놀이, 홍콩 사이클로톤, 홍콩 와인 앤다인 페스티벌 등 100개 이상의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18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7월 실적에서 확인되듯 기상 변수와 본토 시장 의존도가 하반기 목표 달성의 주요 리스크로 남아 있음

□ 홍콩관광청, 해외 22개 주요 시장 대상 글로벌 관광 캠페인 'Only in Hong Kong' 추진

- 홍콩관광청(HKTB)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재방문을 제고, 현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전 세계 22개 주요 송출국(Source Markets)에서 신규 글로벌 관광 캠페인인 'Only in Hong Kong'을 전개함
- 전통적인 관광지 연출 사진에서 벗어나 거리 풍경과 일상적 체험을 강조하며, 다양성(Variety), 활력(Vibrancy), 대비(Contrast), 세계적 수준의 경험(World-class experiences) 등 4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홍콩을 홍보함
- 트램, 정크선, 네온사인, 자우희(Bauhinia) 꽃, 판다 등 홍콩을 대표하는 요소를 반영하여 16가지 색상 기반의 새로운 Visual Identity와 인장(Seal) 형태의 캠페인 로고를 공개함
- 디지털·SNS 플랫폼을 시작으로 TV, 현지 매체, 옥외 광고 등으로 마케팅 채널을 확장할 예정이며, 중국 대륙 및 해외 KOL(인플루언서), 주요 미디어와의 협업을 강화함
- 항공, 호텔, 유통, 이벤트 등 관련 업계 파트너사들과 홍보 플랫폼을 공유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일관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

〈아웃바운드 동향〉

- **캐세이퍼시픽, 중동 정세에 따른 환승 수요 증가로 상반기 순이익 71% 급증**
 - 홍콩 최대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62억 4,000만 홍콩달러(약 1조 1,000억 원)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함
 -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680억 홍콩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중동 허브 공항을 피하려는 유럽-아시아 간 여객들이 홍콩을 대체 환승지로 선택하면서 여객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함
 - 여객 부문 매출이 26.3% 증가한 가운데, AI 산업 활성화로 인한 고가치 IT 제품의 수송 물량이 늘어나면서 화물 부문 매출 역시 24% 증가해 실적 개선을 뒷받침함
 - 이번 순이익에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지분 회식에 따른 일회성 비현금 이익 약 10억~14억 홍콩달러가 포함되어 실적 착시 효과가 일부 존재함
 - 한편, 중동 사태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반기 연료비 지출이 전년 대비 59.1% 대폭 증가했으며, 2분기 연료비는 1분기 대비 약 두 배로 늘어나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캐세이퍼시픽 측은 3분기 여름 성수기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동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에 따른 경쟁 심화 및 유가 고공행진 지속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
- **중동 정세 불안 속 중국 대륙 경유 유럽행 항공 노선 대체안으로 부상**
 - 홍콩을 출발해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이용 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및 안보 불안으로 인해 기존 중동(두바이, 도하 등) 경유 대신 중국 대륙(베이징, 상하이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이 대체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동 항공사를 통한 환승 위험성이 커지면서 주요 여행사(EGL Tours, Miramar Travel 등)와 여행객들은 안정적인 중국 국적 항공사의 대륙

경유 노선을 적극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 대륙 경유 노선은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중동 노선 대비 경쟁력 있는 항공권 가격을 제공하여 장거리 여행객들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영공 통과가 가능한 중국 항공사들의 운항 효율성과 중국 정부의 무비자 환승 정책 확대 등이 맞물려 중국 대륙 환승 노선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홍콩-중국본토 간 신(新) 황강(皇崗)검문소 9월 개통 예정

☞ 출입국 수속 일원화로 홍콩-선전 간 통관시간 5분으로 단축

- 재건된 황강검문소는 지상·지하 9층에 연면적 약 69만㎡ 규모로 이 가운데 홍콩측 구역이 약 25만㎡를 차지하며, 하루 처리 능력은 기존의 5배인 연인원 20만 명으로 설계됨. 홍콩 입법회가 7월 17일 관련 조례를 통과 시킴에 따라 홍콩측 구역은 7월 31일 0시부터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의 관할을 받게 됨
- 새 검문소에는 양측 출입국 수속을 한 건물에서 처리하는 일원화 방식(一地兩檢)이 적용돼, 이용객은 한 번만 줄을 서고 증명서를 한 차례 확인받으면 홍콩과 선전의 수속을 동시에 마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은 기존 약 30분에서 5분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 홍콩 보안국은 8월 17일 브리핑에서 사전 등록을 마친 자격자의 경우 실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함. 다만 중국 측이 시행 중인 증명서 미제시 통로의 자격 요건은 홍콩·마카오 주민 본토 왕래 통행증(回鄉證) 소지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국인을 포함한 제3국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통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속 일원화로 홍콩의 대중교통이 검문소 건물 내 환승센터까지 직접 진입하게 되면서, 록마차우(Lok Ma Chau)와 기존 황강검문소를 오가던 셔틀버스 황파스(皇巴士)는 운행을 중단하게 됨. 운수서는 이를 대체할 시내버스 7개 노선과 소형버스 6개 노선을 배치했으며, 선전 측에서는 지하철 7호선 황강커우안역이 청사와 직접 연결됨
- 홍콩 정부는 8월 중 4차례에 걸쳐 공무원 연인원 3만 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정식 개통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개통 시점은 9월이 유력하나 최종 일자 는 광둥성과 홍콩 양측 정부의 협의로 결정될 예정임

- 8월 8일 선전 육로 검문소의 출입경 인원은 106만1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홍콩 주민의 북상과 본토 주민의 홍콩 방문, 여름 가족 여행 수요가 겹친 결과로 분석됨. 다만 홍콩요식업연합협회 조사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현지 식당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확인됨

□ 홍콩-알마티 직항 2027년 1월 개설 확정: 홍콩 정부, 금융·전문서비스와 관광·인적교류를 축으로 중앙아시아 진출 본격화

- 캐세이퍼시픽은 8월 20일 홍콩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를 잇는 직항 여객노선을 공식 발표하고 예약을 개시했으며, 첫 운항은 2027년 1월 9일로 예정됨. 이는 캐세이의 첫 중앙아시아 취항지이자 홍콩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유일한 직항편임
- 해당 노선은 에어버스 A330-300 기종으로 주 3회 운항되며, 코로나19 이전 에어아스타나가 운항하던 알마티-홍콩 노선이 2020년 중단된 이후 약 7년 만에 직항이 복원되는 것임. 기존 경유편은 최소 10시간 30분이 소요됐으나 직항 시 6시간 10분 수준으로 단축됨
- 이번 노선은 홍콩 정부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과 연동된 사안으로 취항 계획은 6월 존 리(李家超) 행정장관이 이끈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처음 공표됐으며, 당시 총 96건의 협력협정·양해각서(카자흐스탄 61건, 우즈베키스탄 35건, 명시금액 16억5천만 미 달러)가 체결되고 우즈베키스탄은 홍콩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홍콩이 내세우는 협력의 축은 금융·전문서비스이며 존 리 장관은 홍콩이 세계 3대 금융센터이자 최대 역외자산관리 거점, 역외 위안화 허브라는 점을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제개혁과 인프라 개발에 자본·자산배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양국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함
- 관광·인적교류 분야에서는 무비자 확대가 핵심 수단으로 홍콩과 우즈베키

스탄은 6월 상호 30일 무비자 협정 체결을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해, 시행 시 홍콩 여권 소지자의 체류 가능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게 됨. (현재 시행방안이 협의 중)

□ 홍콩 부유층, 여행이 소비를 넘어 '투자'로 인식되는 가치관 변화 뚜렷

- 스탠다드차타드은행(홍콩)은 8월 11일 '2026년 홍콩 여행가치 보고서 (Hong Kong Travel Value Report 2026)'를 발표하고, 부유층 홍콩 주민들의 인생목표에서 부동산이 상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여행은 일종의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힘. 해당 조사는 6월 중 30세 이상 부유층·고자산가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60%가 자녀를 둔 부모였음
- 인생목표 항목에서는 조기 은퇴가 49%로 가장 많았고 심층·몰입형 여행이 48%, 심신 건강이 47%로 뒤를 이었으며, 첫 주택 구입 또는 이상적인 주택 보유는 24%에 그쳐 7위에 머무름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행을 투자의 한 형태로 인식했으며, 투자가능 자산 780만 홍콩달러 이상의 고자산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72%에 달함. 또한 70% 이상은 여행 경험이 주는 가치가 주식·부동산 등 전통적 투자수단에 필적하거나 이를 넘어선다고 답함
- 여행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약 90%가 '인증샷 위주' 일정보다 심층 여행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여러 도시를 짧게 도는 대신 적은 수의 목적지에 오래 머물며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약 40%는 자연 속 치유 경험을 일정에 포함하고 싶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80%는 젊은 시절 가장 큰 후회가 저축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여행하며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답함
- 지출 구조에서도 여행의 비중이 확인됨. 응답자의 3분의 1은 연간 여행 지출이 외식·오락·패션 등 일상 소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답했고, 고자산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5%로 높아지며 월평균 약 3만 홍콩달러를 여행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연간 계획 지출액은 고자산가 34만5천 홍콩달러, 전체 응답자 15만 3천 홍콩달러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특히 몰렸던 2024년 조사

- 당시의 87만 홍콩달러에는 크게 못 미침. 즉 여행의 '우선순위' 상승이 곧 지출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됨. 부유층 부모의 92%가 해외여행을 자녀 교육 투자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요소로 꼽았으며, 이는 과외나 방과후 활동보다 높은 순위였음
 - 여행 목적에서는 70% 이상이 대규모 경기나 행사 참여를 위해 해외로 나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스포츠 관련 체험(50%)과 예술·문화 행사(43%)가 가장 인기가 높았음
 - 단, 조사 주체가 항공사 제휴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이라는 점, 표본이 30세 이상 자산 보유층으로 한정된 점에서 홍콩 인구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 이러한 가치관의 배경에는 부동산의 위상 변화가 있음. 주택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으로 꼽히는 홍콩에서 오랫동안 가계의 핵심 자산이었으며, 2000~2003년 부동산 부문이 홍콩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약 21% 수준으로 하락함(중국 창청증권 2024년 보고서 기준)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6/01.htm?fontSize=1>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kr/index.html>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